열린세상

광주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정진탄
월간국장 겸 논설위원

지금 친문으로 불리는 세력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열띤 공부 주제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발전 단계에 있느냐는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당시 거의 모든 사회과학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사회발전 단계가 식민지 반봉건이냐,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냐를 놓고 진영 간 이론적인 싸움이 있었고 운동의 대오를 이뤘다. 지금도 그 후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론은 퇴물이 된지 오래다.

새삼 이 시점에서 그 당시 이론적 흐름을 꺼낸 것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국가의 역할론과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주장과 논쟁이 있어서다. 청년의 삶과 주거에까지 국가의 책임이 확장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과 실행 여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얘기를 삼천포로 빠져 해보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나 청소년들은 치킨과 피자를 싫어한다고 한다. 이런 시설을 방문하는 이들이 갖고 오는 음식 대부분이 치킨과 피자여서 신물이 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벤트성 음식이 아닌 삶의 의지를 북돋워주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같은 그 '무엇'인데 말이다.

지속 가능한 삶의 조건

같은 얘기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해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나쁘지 않으나 그런 식으론 안 된다. 치킨과 피자를 주는 것과 진배없다.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주고 의욕을 불태울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국가가 해줘야 하는 것은 얼마간의 버틸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을 갖게 하는 그 '무엇'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 '무엇'의 제공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해당된다. 자체 예산을 풀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일 뿐이다. 그런 것 이외에 침묵하는 다수, 소시민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을 그 '무엇'을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행복을 신경 쓰는 행정 당국이라면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쉽게 말해 시민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형유통 업체 또는 복합쇼핑몰 유치도 이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시 한 번 얘기를 다른 데로 돌려보자. 요리연구가 백종원씨가 30년 전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이니 하는 사회구성체 논쟁 시절에 짠 하고 나타났다고 한다면 별 인기가 없었을 것이다. 사회분위기가 투쟁으로 어두웠는데 요리연구가가 등장해서 반향을 일으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30년 뒤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가 확 바뀐 시대에 백씨가 활보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 쾌남형에 따뜻한 이미지, 거기에 현대인의 행복 요소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백씨는 당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힐링 비슷한 그 '무엇'을 제공하기에 주목의 대상이다. 개인이 아닌 집단 차원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다. 광주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기관과 집단이 여럿 있을 수 있겠지만 광주시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을 위해 이런저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그 '무엇'을 찾아 주는가. 다시 말해 재난지원금 같은 것 말고 일반 시민의 행복과 삶의 윤택을 위해 그 '무엇'을 제공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것처럼 광주시도 만능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백종원씨 같은 캐릭터가 발산하는 힐링 비슷한 그 '무엇'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요구된다.

시민 삶의 행복 위한 노력

시민의 안녕과 복지, 행복을 거들어주는 곳이 행정 당국이 아닌가. 지역전략 산업 유치와 성공으로 시민들의 '아랫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침묵하는 다수가 정처 없이 무미건조한 도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광주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다.

궁극적인 미래 전략산업은 인공지능(AI) 같은 차원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고 얻는 일이며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 현대 자본주의도 진즉에 '천민자본'이란 오명을 벗고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에 맞춰 변형하며 그 흐름을 타고 있지 않은가. 이 또한 시민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 '무엇'을 줘야 한다.

기고

태풍피해, 대비하면 줄일 수 있다

김운형
전남도 자연재난과장

올해 폭염으로 전남지역에서 가축 4만 8,000여 마리와 어폐류 64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엔 아침 저녁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문 앞에 서 있지만 해마다 태풍은 반복적으로 평균 26~27개 정도가 찾아온다. 그중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평균 3~4개 정도이다. 벌써 11개의 태풍이 발생됐다 사라졌다.

가을이면 의례 찾아오는 손님이지만 올해에는 유독 심상치 않다. 해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자연재난에 늘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왠지 걱정이 앞선다. 태풍은 해수 온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태풍은 북위 5~25도(N), 동경 125~160도 사이의 해상에서 주로 발생하며, 태평양 전체로 보면 서쪽 부분에 해당한다. 인근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해수 온도가 높으면 그 영향력을 공급받아 대형급 태풍으로 발달해 우리나라 제주도 인근까지 오다가 연근해 해수 온도 저하로 세력이 감소해 우리나라를 빠르게 통과하는 형태다. 태풍은 열대저기압으로 해수면 온도가 26.5도 이상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강한 태풍들은 해수면 온도가 28도 이상인 곳에서 급속히 발달하는 일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 해수 온도는 27~28도를 넘나들고 있고, 바로 올해 강한 태풍이 발생돼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의심되고 있는 한 해이다. 2002년 8월 23일 괌 섬 동북동쪽 약 1,8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루사는 발생 초기 소형태풍에 불과했으나 대형 태풍으로 세력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사망·실종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 원이 넘는 재산피해 발생했다.

2012년 연달아 우리나라를 내습한 덴빈, 볼라벤, 산바의 태풍생성지역 해수 온도는 28~29도였고, 2012년도 패해규모 또한 1조 89억 원으로 엄청났다. 그해 실종·사망 16명, 이재민 발생 1만8,356명, 공공시설피해 6,400억 원, 건물, 선박, 농경지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는 5,3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고, 복구비용은 약 2조 원으로 2002년 루사 이후로 가장 큰 피해를 안겼다.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사전대비 소홀이 주요 원인이다.

아무리 강한 태풍이라도 대비를 잘 하면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다. 태풍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인식부족, 사전대비에 대한 소홀함이 맞물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태풍은 발생부터 소멸할 때까지 보통 1주일~10일, 길게는 20일 정도의 수명을 가진다. 태풍으로 발달하게 되면 열대 해상에서 소멸하는 일은 드물며, 해수면 온도가 낮아져 수증기 공급이 감소하는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면 세력이 약화한다. 오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를 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선과 선박, 수산증양식 시설도 마찬가지로 단단히 고정 결박하고 준비해야 한다. 농산물도 출하를 서두르든지 빨리 추수해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올해 해수 온도가 높아 비록 불안하기는 하지만 2면이 바다와 접하고 태풍의 길목에 있는 우리 도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연재해에 지금부터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산간계곡 외딴 집,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현장 책임관 및 관리관 지정과 배치를 사전에 완료해야 한다.

또한, 재해우려지역,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상황 및 대피로, 대피장소 운영 실태 확인,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및 전문인력 배치 확인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담당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침수, 유실, 붕괴, 고립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에 정비하고, 해안가 저지대 등은 선박 결박, 인양 등 안전지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나서야 방재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잊어버린다.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한 깊은 생각이 필요한 시기다.

먼저 우리 모두 태풍이나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맞이하는 인식의 전환과,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기상 특성에 적응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점차 증가하는 자연재해로부터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살인적인 무더위는 사라지고 집채만 한 파도와 모든 것을 날려 버릴 듯한 기세의 태풍이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정적인 폭염의 계절이 지나가고 역동적인 태풍의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자연재해 대비로 인명피해 제로, 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꿈꿔야 한다.

독자광장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필요

7월 1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지역은 전체인구 중 35% 이상이 65세이상 노약자다. 노약자가 주로 이동하는 교통 수단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전국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5년 401명(8.7%)에서 2020년 523명(17%)으로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망자수의 절반이상은 65세 이상이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에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고 운전자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횡단보도 투광등·활주로형 횡단보도·가로등 등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또 급경사나 급커브길 대형교통사고예방 시설물 설치, 노후 퇴색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교체 등 교통시설예산 확대편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주영 함평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사설

'여수항 미래 100년' 가슴 벅차다

여수항이 2년 후면 개항 100년을 맞는다. 여수시는 여수항이 1923년 4월 1일 무역항의 기능과 역할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지난 100년 회고와 미래 100년 비전 수립을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사람과 공존하는 여수항의 미래를 그리다'란 주제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미래 후손들이 여수항에서 푸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수항 미래 100년 비전과 실행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때다. 비교 우위의 지역 특색이 반영되고 여수항의 발전 가능성을 증폭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0년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치욕과 참혹함을 함께 해왔다면 향후 100년은 창대한 역사를 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는 지금 핫플레이스 중 핫플레이스다. 전국 관광객이 1순위로 뽑는 곳이 아닌가. 동쪽에 부산이 있다면 서쪽에 여수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수는 지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 남해 해저터널로 연결되면서 경남과 경북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자유롭게 오는 관광지가 될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철도와 항만의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국제 여객항로가 확장되면 대한민국의 여수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여수가 될 전망이다. 발전 상황에 따라서는 호남지역의 1대 도시, 대표 도시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은 광주가 광역시로 중심을 잡고 있지만 해양을 낀 도시 여수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이 최대 국정 화두인 시대에 여수의 성장은 지역 안팎으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성원을 받을 것이다. 이에 힘입어 담대한 미래 100년의 새 역사를 써가길 희망한다.

문화발전 역행하는 개방형 직위 해제

광주시가 성현출 문화예술회관장의 사직에 따라 문예회관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키로 해 지역 문화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용섭 시장은 취임 후 문화행정을 혁신하고 문화계와 소통하겠다며 문화예술계 수장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했다. 이전의 문화예술회관장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머물다 가는 자리로 전문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성 관장은 지난 2019년 2월 개방형 직위 관장으로 임명될 당시 정치인 출신 인사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선거 캠프 보은 인사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며 임명을 강행했었다. 성 관장은 2년 임기에 더해 1년 더 연임됐지만 최근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 등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성 관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등 문화예술 역량보다는 행정적 뒷받침이 더 필요한 시기라는 해명이다.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조한 외부 인사로 문화행정 혁신을 꾀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광주시는 당분간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임용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의회와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들어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역 문화계와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 것은 유감이다. 28년만에 어렵게 바꾼 공모제를 시행한지 2년 6개월만에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 더욱 그렇다. 전문가 CEO 영입 추세인 현 문화계 흐름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광주시는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길 바란다.

메타버스 허와 실 모두 관심가져야

기자수첩

이나라
사회부 차장대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이나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세계를 말한다. 비대면 속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에 교육계 또한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전남대, 호남대, 동신대 등 광주·전남 지역 대학은 2학기에 메타버스 활용 수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학술학회, 고등학교 대상 대학상담 등 메타버스 플랫폼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며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교육계 뿐만 아니라 정부, 산업, 금융 유통 등 한반도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신한카드는 메타버스와 결합한 상품을 출시했고, LG전자는 사내에서 진행한 소프트웨어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식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했다. 정부 또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메타버스가 포함된 초연결 신산업 육성 분야에 오는 2025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집중할 뿐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이미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이버불링, 성희롱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지역 대학 또한 메타버스 도입을 놓고 고심하곤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메타버스는 전반적으로 전도유망한 산업임은 확실하지만 부작용 역시 간과해선 안된다. 법적인 기틀 마련과 디지털 환경 속 소외 고립감 등도 제기된다.

메타버스가 일상화될 시대에선 현실의 차별과 편견이 재현되지 않고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 고령층 등 수요자 관점을 반영한 'K-메타버스'가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긴급전화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3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06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산실	(062) 720-1033
사회2부	(062) 720-1043	월간국	(062) 720-10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매국	(062) 720-1004
문화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 TEL (062) 720-1050~53 • 사회부장 010-5601-2219 • FAX (062) 720-1080 •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 TEL (062) 720-1016~17 • FAX (062) 720-1020 •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